

아시아의 섬유 산업

- 중국 섬유 수출 격감에도 존재감 다시 커져

2008년 아시아(일본과 NIES* 제외) 경제 성장률 7.8% 중에서 약 60%는 중국이 기여하였으며, 2009년 아시아 경제도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데에 따라 크게 다르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자원과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2009년 중에도 경기 자극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섬유 산업에 있어서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에 대한 논의는 한발 뒤로 물러나고,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 같은 분위기이다.

* NIES :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 신흥 공업 경제 지역

◎ 중국의 섬유 수출 충격적으로 격감

중국의 세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2월의 방직 제품 수출이 2008년 동월과 비교하여 32.5%가 줄어든 25억 6,000만 달러, 어패럴(부속품 포함)이 36.7% 줄어든 41억 1,000만 달러로 격감하였다. 2008년 2월에는 설해(雪害)의 영향으로 수준이 낮았었는데, 그 수준보다도 크게 밀돌았다. 그리고도 구정월(旧正月)이 1월 26일로 빨라졌는데도 전년 실적보다도 크게 떨어져 업계에 쇼크(shock)를 주고 있다. 2월의 총 수출은 649억 달러로 전년과 비교하여 25.7% 줄었다.

2009년 1월 ~ 2월에는 중국의 대외 무역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과 구주 연합(歐洲 聯合 : EU), 미국, 일본 등 상위 3대 무역 상대국 (上位 3大 貿易 相對國)·지역과의 무역 실적은, 전년 동기의 대외 무역 실적 전체의 수준을 웃돌았다. EU, 미국, 일본의 3대 무역 상대국과의 2009년 1월 ~ 2월의 2국간 무역액(二國間 貿易額)의 감소폭은 전체의 감소액을 각각 7포인트, 9.8포인트, 1.5포인트 밀돌았다.

중국에서 최대의 무역 파트너(貿易 partner)인 EU와의 무역액은 총액 487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0.2%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무역액은 총액 394억

3,000만 달러로 17.4% 줄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의 경기가 계속 나쁜 일본과의 무역액의 감소폭은 좀 커서, 1월 ~ 2월의 2국간 무역액은 총액 285억 6,000만 달러로 25.7% 줄었다. 그 중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138억 5,000만 달러로, 17.5% 줄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47억 1,000만 달러로 32.1% 줄었다.

◎ 1국화 염려한 플러스 원이 멀어지는 듯

2009년 1월 ~ 2월에 중국의 어패럴 수출액은 누계(累計) 146억 2,000만 달러로 2008년 동기와 비교하면 11% 줄었다. 2월 한 달만을 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41억 1,000만 달러로 참으로 36%나 줄었다. 이러한 부진 상태에서 중국은 수출 공세를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소극적이던 기업도, 자세를 바꿀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일본 기업은 어패럴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싼 값을 찾아서 차이나 플러스 원을 찾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중국의 수출 자세에 따라서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이 아닌 0.1 정도의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2009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인도나 태국 등을 방문한 섬유 무역 관계자에 의하면, 현지에 있는 유력 섬유 기업들 사이에서 룩 저팬(look Japan)의 무드(mood :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구미로의 수출을 주로 하여 판매해 온 이 지방의 수출업자들 사이에서 일본 시장을 다시 검토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구미 시장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아 ‘일본으로나 팔자.’는 것인데, 상대하던 관계자가 “일본 시장도 세계 불황에 휩쓸려서 결코 좋지 않아.”라고 말하여도, 구미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도 공통된다. 광둥성(廣東省)을 중심으로 한 화난(和南) 지구에서는, 생산 코스트가 오르면서 인건비가 싼 북부 지역으로 오더를 돌려주고 있었는데, 이 화난 지구로 바이어(buyer)가 되돌아오고 있다. 중·소 로트(中·小 lot)의 생산에서, 재빠르게 받아, 작은 오더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3,000명 규모의 미국으로 수출하는 봉제 공장의 하청을 받아, 하하청(下下請)을 넘겨받던 수백 명 규모의 공장이 직접 일본 기업의 주문을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다. “이제까지는 일본의 주문을 받지 않던 그들도, 주문이 격감하자, 배부른 소리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홍콩에 있는 어패럴 상사는 생산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코스트가 높은

화난 지구에서도 이런 상황이니 이런 움직임은 중국 전체로 퍼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3월 하순에 중국 섬유 기업들이 같이 오사카에서 상담회(商談會)를 열었고 차이나 패션 페어(China Fashion Fair)와 산둥성(山東省)의 전시 상담회(展示 商談會)도 열었다. 이들 행사에는 모두 과거 한때는 최고 수준의 기업이 참가하였다. 그 규모와 열의로 록저팬의 의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 동남아시아 봉제 업계는 록저팬을 검토 중

록저팬의 움직임을 베트남에서 찾아보면, 베트남의 2008년 섬유 제품(섬유 봉제품) 수출은, 목표인 95억 달러를 조금 밑돈 91억 달러로 2007년 실적보다도 17.5%가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100억 ~ 105억 달러로 목표를 올리고, 이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2008년의 베트남 수출 총액 중에서, 섬유 제품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무역 촉진, 자금 조달, 우대 세제 등을 추진하여, 섬유 제품 수출 진흥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 초의 동향을 보면 구미 시장이 악화된 영향으로 일본 시장을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2009년 1월의 베트남 섬유 제품 수출은 2008년 동월보다도, 33.2%나 밑도는 5억5,000 달러였다. 방직용 섬유 원재료의 수입도, 35.9%나 크게 줄었다. 지금 많은 봉제 기업이 구미(歐美)로부터의 주문이 줄어 고민하고 있다. 베트남 봉제업 협회(縫製業 協會)에 의하면, 봉제업의 약 70%가 2009년 2월말 시점에서 새로운 주문은 없고 3월말까지 주문받은 나머지 일감뿐이었다. 주문이 있어도 값을 크게 깎아 평균 10% 깎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시장을 다시 검토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다. 소 로트(小 lot)이고, 품질이 까다로운 일본으로의 상품 생산을 싫어하면서 구미로부터의 수주를 우선하던 경향이 화난 지역에 있었지만, 상황이 급하게 되어 남을 돌볼 여유조차 없게 되었다. 화난 지역 등도 중국의 다른 어패럴 생산 지역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 아세안과의 경제 연휴 협정에 기대를 걸어

일본 아세안(ASEAN) 포괄적 경제 연휴 협정(包括的 經濟 連携 協定 : AJCEP)이 2008

년 12월 1일 베트남에서 발효하였다. 또한 일본·베트남 경제 연휴 협정(JVEPA)은 2008년 12월 25일 조인하였다. 태국에서도 2009년 내에 AJCEP가 비준됨으로서 무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봉제 기업은, 일본 기업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로의 봉제지 시프트(縫製地 shift)를 여기 저기 찾는 움직임에, 이 AJCEP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도 생지(生地)를 미얀마(Myanmar), 라오스(Laos), 캄보디아(Cambodia), 베트남(Viet Nam)에서 봉제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에 제로 세율(zero 稅率)을 적용하기 때문에 순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언제나 위안화 절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어, 새로운 노동 계약법이나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코스트 상승의 압력은 지금도 살아 있다고 보는 데에 그 배경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력을 알볼 수는 없다. 금융 위기 이후로 코스트 상승에 제동이 걸려, 중국 1극 집중(中國 一極 集中)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 같은 위세조차 보이고 있다.

‘중국이 하기 나름...’, 2009년도에는 아시아 경제도 섬유 동향도 중국을 주역으로 하여 회전하게 될 것 같다.♣